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남성의 양성평등정책 통합을 위한 정책 논리와 추진과제 과제책임자 마경희 연구위원 (Tel: 02-3156-7267 / e-mail: mkhee@kwdimail.re.kr)

해외의 남성 통합적 성평등 정책 사례와 시사점*

“ 유엔,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해외의 남성통합적 성평등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양성평등기본법』 하에서 남성을 어떻게 정책 대상으로 포괄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1. 배경 및 문제점

- ♡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양성평등정책에서 남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에 추진해 왔던 여성정책과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설정하고, 어떠한 목표에 기반하여 남성을 정책 대상으로 포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임. 성평등과 남성, 성평등 정책에서 남성 통합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 일각에서는 과거 여성정책이 주로 여성을 지원했으므로 양성평등정책은 남성도 지원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 정책은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이러한 대상 중심의 이해는 양성평등정책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성차별과 불평등한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임.
- ♡ 과거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과 기회는 여전히 불평등한 것이 현실이므로 양성평등정책은 여성정책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남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 조사 및 분석결과

가. 유엔과 유럽연합

- ④ ‘성평등과 남성’은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 성평등과 관련된 유엔의 중심적 의제가 됨. 2004년 제48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의에서는 ‘성평등에서 남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성평등을 위한 남성의 역할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함.
- ④ 유럽연합에서 남성과 성평등에 대한 관심은 주로 자녀양육 등 남성의 가족 내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점차로 광범위하게 정책 이슈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2007년 유럽회의는 성평등에서 남성 참여를 위한 일반적 원칙과 주요 영역을 포함한 합의문을 발표함.
- ④ 유엔과 유럽연합에서 성평등 정책과 남성에 대한 접근은 친여성주의, 비판남성학의 관점을 전제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정책 방향에 대한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음.
- ④ 유엔은 성평등에 대한 지지자이자 파트너로서 남성의 참여와 행동의 변화를 강조하는 반면, 유럽연합은 남성의 전통적 역할 변화와 남성들 내부의 차이에 주목함. 특히 유럽연합은 성별 고정관념과 성역할 분리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핵심 제도인 학교, 노동시장, 가족에서 기존의 남성의 역할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 이민자, 실업자, 저소득층 남성 등 주변화된 남성에 관심을 기울임.
- ④ 유엔과 유럽연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배적 남성성과 폭력의 밀접한 관련성을 전제하고 폭력의 개념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제한하지 않고 젠더 기반 폭력으로 확장하여 대응할 것을 권고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을 일차적으로 강조하지만, 남성들 사이의 폭력, 폭력 피해자로서 남성에도 관심을 기울임.
- ④ 국제기구에서 제안하는 남성 통합적 성평등 정책의 주요 영역은 반폭력, 교육, 부성, 남성건강, 남성지원서비스, 정책형성기반 등임.

나. 반폭력: 하얀리본운동(White Ribbon Campaign)

- ④ 1989년 12월 6일 캐나다 몬트리올 공대에서 한 남자 대학생이 여학생들을 살해한 사건 이후 1991년 남성들이 중심이 되어 여성에 대한 남성폭력 근절을 위한 의식고양운동으로 발전 하였으며, 현재 60여개 국가가 매년 이 운동에 참가하고 있음.
- ④ 최근 이 운동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적극적인 목격자’(호주), ‘스포츠와 남성폭력’(영국), ‘존중 하는 관계’ 및 ‘동의를 기반한 성관계’(뉴질랜드) 개념들에 주목할 만함.

다. 교육: 비전통 분야로의 진로 탐색 프로그램(독일)

- ④ 직업선택에서 성별 분리를 해소하기 위해 2000년부터 여학생을 위한 ‘소녀의 날’을 운영해 온 독일 정부는 남학생들 또한 이른바 ‘여성적 직종’으로 알려진 사회적 섹터 및 돌봄 직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년들의 새로운 전망(New Paths for Boys)』 프로젝트를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음. 이후 2011년부터 ‘소년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음.

라. 부성: 남성성 재구성 프로젝트 로서 ‘아빠의 달’(스웨덴)

- ④ 1974년 아버지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한 이래 스웨덴에서 육아휴직 개혁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확대를 목표로 해 왔음.
- ④ 이는 단순히 육아휴직 이용률 확대를 넘어서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남성이 여성과 똑같이 자녀 양육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강한 개입주의적 프로젝트와 병행됨.

마. 남성건강: 조사·연구에 기반한 남성건강기본계획 (아일랜드)

- ④ 최초로 국가차원의 『남성건강정책기본계획(National Men’s Health Policy: Working with Men Ireland to Achieve Optimum Health and Wellbeing 2008–2013)』을 수립함.
- ④ 『남성건강 이해하기(Getting Inside Men’s Health)』라는 3년간의 조사연구,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역사회/자원활동가, 학계 등 광범위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남성건강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표함.
- ④ 지배적 남성성이 남성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주목하는 젠더 관점에서 남성 건강 문제에 접근함.

**바. 남성지원서비스:
남성을 위한 성평등 자원
센터 리폼(Reform)
(노르웨이)**

- 남성을 위한 자원 센터(Resource Center for Men)라는 뜻의 리폼(Reform: Ressurssenter For Menn)은 2002년에 설립된 노르웨이 최초의 남성 지원 기관임.
- 설립 초기에는 이혼, 별거, 자녀와 가족관계, 폭력과 공격성 등과 같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남성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출발했으나, 점차로 남성의 관점에서 성평등을 위한 거시적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거점 기관으로서 정체성이 형성됨.
- 리폼은 폭력, 가족갈등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남성의 현실적 요구를 지원하는 한편, 남성과 남성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성평등한 남성성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활동도 함께 전개함.
- 노르웨이는 성평등에서 남성 역할 증진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남성의 삶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원회 정책 권고의 기반이 되는 자료를 축적하면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 1986년 남성 역할 위원회(Committee on Men's Role)를 설치하고, 1988년에는 남성의 돌봄 잠재력과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된 『노르웨이의 남성(Men in Norway 1988)』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음.
- 2007년에는 새로운 토론 그룹인 남성 패널(Men's Panel)을 구성하고, 20년간의 남성의 삶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성평등과 삶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새로운 남성 패널의 정책 제언과 2007년도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2009년 노르웨이 아동과 성평등 부는 성평등 정책에서 남성 통합을 위한 새로운 정책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함.

**사. 조사 · 연구:
남성의 삶에 대한
조사 · 연구(노르웨이)**

- 노르웨이는 성평등에서 남성 역할 증진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남성의 삶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원회 정책 권고의 기반이 되는 자료를 축적하면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 1986년 남성 역할 위원회(Committee on Men's Role)를 설치하고, 1988년에는 남성의 돌봄 잠재력과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된 『노르웨이의 남성(Men in Norway 1988)』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음.
- 2007년에는 새로운 토론 그룹인 남성 패널(Men's Panel)을 구성하고, 20년간의 남성의 삶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성평등과 삶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새로운 남성 패널의 정책 제언과 2007년도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2009년 노르웨이 아동과 성평등 부는 성평등 정책에서 남성 통합을 위한 새로운 정책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함.

3. 정책제언

**가. 남성통합적 성평등
정책의 방향**

- 성평등 정책에서 남성 통합은 생물학적 범주로서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이 아니라 젠더관계의 다른 한 축으로서 남성의 태도와 행동, 삶의 경험에 관심을 가지는 것임. 즉, 기존의 성불평등 문제와의 관련성 속에서 성별화된 존재로서 남성의 삶과 남성성을 정책 의제로 설정하는 것임.
- 향후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
- 첫째, 성평등을 위한 남성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 둘째, 성평등에 대한 남성의 지지와 조직화, 셋째, 남성들 내부의 차이를 고려한 남성지원서비스 등임.

**나. 남성의 성역할 변화
를 위한 정책 과제**

〈표 1〉 남성의 성역할 변화를 위한 정책 과제

과제	사업내용
성평등 어린이 집/유치원 시범사업 실시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시범사업 실시 아동이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성평등 의식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할 수 있도록 아동을 대하는 교사의 태도와 언어, 장난감과 교구, 놀이, 공간배치 등 보육·교육 환경을 전면 개선한 성평등 모델을 개발하여 일정기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점차로 확대
성별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직업 탐색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들이 직업에 대한 성별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우선시하여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소년의 날’에는 소년들이 ‘여성적’ 직업을, ‘소녀의 날’에는 소녀들이 ‘남성적’ 직업을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
남학생 대상 남성성 성찰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학생들이 지배적 남성성에 대해 비판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우리사회에서 남성에게 기대되는 역할, 기질, 규범을 당연시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남성적 성역할 기대에 구속되지 않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여성의 일이었다던 가사와 돌봄 노동을 남학생들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포함
남성에 초점을 맞추는 일-가족 양립 제도 이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휴직 뿐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제 일자리, 산전후 휴가 등 자녀양육을 사유로 한 근로시간의 탄력적 이용과 관련된 모든 일-가족 양립 제도, 특히 남성의 이용을 증가를 목표로 하여 추진 자녀양육을 위해 일-가족 양립 제도를 이용하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자녀양육과 교육 정보, 네트워크 구축 지원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를 위한 온라인 포털 사이트 구축

다. 폭력근절을 위한 남성 참여의 조직화

〈표 2〉 폭력근절을 위한 남성 참여의 조직화

과제	사업내용
성평등 관련 남성 소모임 활동 /단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배적 남성성을 비판하면서 다양한 대안적 남성성 모델을 추구하는 남성들의 소모임과 단체를 발굴하여 활동을 지원 ■ 군대 내 폭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남성주도 인권 운동 단체 지원
남성 주도 반폭력 캠페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하안리본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남성단체 지원 ■ 온라인상의 여성혐오와 군대 내 폭력 문제에 대응하는 캠페인 활동 지원
반폭력 여성운동의 남성 대상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피해여성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남성 대상 가해자 교정 교육을 넘어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

라. 남성건강정책 추진 기반 마련

〈표 3〉 남성건강정책 추진 기반 마련

과제	사업내용
남성건강에 대한 중장기 조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적 맥락에서 지배적 남성성과 성평등 인식, 남성 건강 행동 및 남성 건강의 관계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한 통계자료 구축 ■ 대규모 조사 뿐 아니라 초점집단인터뷰, 면접조사 등 질적 자료 조사 병행
남성건강네트워크의 조직화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을 위한 이슈로서 남성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조직과 개인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 ■ 젠더 전문가와 여성단체의 참여 ■ 세계남성건강주간 행사 개최 지원

마. 남성종합지원서비스

- 📍 노르웨이의 리폼을 모델로 한 남성종합지원서비스 기관 지원.
- 📍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남성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지배적 남성성에 대한 대안으로써 성평등한 남성성 모델의 확산을 위한 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관 지원.
- 📍 남성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운 상황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통해 현실적인 요구에 대응하고 남성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한편 지배적 남성성 모델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점 기관으로서 기능.

바. 성평등에서 남성 통합을 위한 포괄적인 조사·연구

- 📍 노르웨이의 『성평등과 남성의 삶의 질』에 대한 조사연구를 참조하여 한국의 성(불)평등과 남성의 관계, 성평등에 대한 남성의 인식과 실천, 성평등 정책에서 남성들의 관심과 요구를 중심으로 한 양적, 질적 조사 연구 수행.

4. 기대효과

- 📍 이 연구는 성평등 정책에서 남성 통합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이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는 미흡했던 한국적 상황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체계적인 정책적 리뷰이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에 보다 정교한 논리와 과제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관계부처: 교육부, 노동부, 보건복지부